

국힘 대선 주자들, 기업 친화·세금 인하·핵무장 공약

홍준표 “규제 완화·52시간제 폐지”...김문수 “법인·상속세 인하” 한동훈 “근로소득세 인하”...안철수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 나경원 “1년 안에 핵무장 결단”...21~22일 2차 경선 4명 가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20일 본격화하면서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저마다 기업 친화, 안보 강화, 중산층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워 중도·보수층 공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경선 단계마다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되면서 중도·보수층의 표심이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선, 정밀적 상속세 대폭 완화도 제시했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 철폐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우대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는 집권 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는 등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중산층 비율 70%’를 위해 근로 소득세를 인하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워룸’을 만들어 경제 전쟁에 대비하고,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핵무기 개발이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홍 후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며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 능력 확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 한 후보, 안철수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 한 후보는 AI 인프라 마련에 총 200조원 투자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에 진입하고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나 후보는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최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5단계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민감한 공약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홍 후보는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의 사형을 집권 후 6개월 내 집행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원 평가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와 나 후보는 수능을 연 2회 이상 실시해 최고점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입시 정책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20일까지 이를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후보 8명은 ‘찬반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와 ‘반찬파’(탄핵 반대)로 나뉘어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치열한 상호 견제전을 벌였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는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각기 중도·청년층 및 당 기존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대선 후보 선출

2022년 이어 두번째

진보당은 19일 당 대선후보 선출대회에서 63.85%를 득표한 김재연 상임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경쟁자였던 강성희 전 의원은 36.15%를 얻었다.

김 후보는 “내년 국민 참여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내겠다”며 “진보 정치

의 전성기를 열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2년 대선에도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후보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노코멘트’ 한덕수... ‘갑론을박’ 국민의힘

韓, 영국 언론과 인터뷰서 대선 출마 질문에 “결정 안내렸다” 경선 후보들 “괜찮은 카드”...김상욱 “당원도 아닌데 회의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의힘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3 조기대선에 출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대답했다.

한 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는데에서 비롯되는 우려에 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며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대선 승리라는 최종 목적을 놓고 볼 때 괜찮은 카드라는 반응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한 지적부터 당 경선이 한창인 와중에 외부 인사의 출마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한 대행의 출마론에 대해 “요즘 좀 잠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며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 후보 토론회 후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언론에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로서 나쁜 게 아니다”라며 “경선이 미묘하게 돌아가는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적 흥미를 자아내니 나쁜 뉴스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후보는 경선 후보는 “한 대행의 행보가 조금 아쉽다. 한마디로 당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한 대행을 지지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 한 대행이 좀 더 당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상욱 의원은 SNS에 “한 총리는 당원도 아니고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한 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당의 경선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국회서 오늘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등 제안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지역분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21일 국회에서 첫발을 내딛는다.

20일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비전트를 표방하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전국회의) 발대식이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계, 학계 인사들과 지역 정

책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

전국회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8명),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지역혁신 활동가그룹인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연대회의),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 등 역대 민주정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 균형발전정책 위원장들과 학계 원로, 중진 및 신진 학자들이 한데 모인 최초, 최대 규모의 협력적 거버넌스다.

전국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성남수정) 의원을 상임대표로, 같은 당 강준현(세종율)·

김영배(서울성북갑)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KDLC 상임대표), 오세훈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4명을 총괄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서울영등포을), 전현희(서울중성동갑) 최고위원과 같은 당 신정훈(나주화순)·박주민(서울은평갑)·진성준(서울강서을) 의원 등 중진들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참석해 출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전국회의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등 특화수도 구상, K-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국토공간, 산업과 금융, 재정, 교육인재 등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대선후보들에 제안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